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노소영[†]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22년 11월 14일 접수: 2022년 12월 23일 수정: 2022년 12월 26일 채택)

The Effects of Strengths Knowledge and Self leadership of Clinical Practi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So-Young Roh[†]

Department of Nursing, Songwon University

(Received November 14, 2022; Revised December 23, 2022; Accepted December 26, 2022)

요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로 G시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기술적 통계, t검증, ANOVA, Pearson 상관계수, 통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점인식($\beta = .464, p < .001$)과 셀프리더십($\beta = .512, p < .001$) 모두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연구모형은 진로준비행동을 34.1%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증진을 위해 강점인식과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강점인식,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Abstract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attempted to verify the effects of strengths knowledge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tudents enrolled in Department of Nursing in G cit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controlle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Strengths knowledge($\beta = .464, p < .001$), self leadership($\beta = .512, p < .001$) showe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study model accounted for 34.1%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easures to increase strengths knowledge and self leadership are needed to promo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Nursing student, Strengths knowledge, Self leadership,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E-mail: rsy2010@naver.com)

* This study i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Songwon University in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자신의 가치관이나 적성 및 진로를 고려하지 않고 학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을 앞둔 고학년이 되어 자신의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거나 확실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학교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하고 교환학생, 선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취업박람회 등 교내·외 활동의 기회가 줄어들어 인하여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2020년 대학생 2,14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과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전국 4년제 진로 결정 현황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중 48.6%가 아직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공계열별로는 사회과학계열 50%, 인문계열 52%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2]. 또한 대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은 진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진로를 결정한 그룹(76.0%)보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그룹(95.7%)의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을 했어도 자신의 적성과 기대에 맞지 않아 조기 퇴사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3] 코로나 19로 인하여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탐색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진로준비행동이란 개인이 본인의 삶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몰입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활동[4]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적성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무엇을 하며 살것인지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5]. 따라서 진로준비가 부족할수록 사회생활에 부적응할 수 있으며, 진로준비행동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진로준비행동에 충실할수록 첫 직장에 만족도가 높아진다. 또한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실천할수록 개인의 행복감도 증진된다[6]. 이처럼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선결과제이므로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생활부적응을 감소시키고 이직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후 행복감과 만족감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변수로 생각된다.

강점인식이란 자신의 강점을 인지하고 지각하는 것으로 대학생 시기에 스스로 강점을 인식할수록 자신의 삶에서 더욱 강점을 활용하게 되고 성취와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하게 된다[7]. 강점인식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관여행동과 진로준비행동 등 진로관련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이처럼 강점인식은 대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점인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진로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 스스로 주도하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운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인 셀프리더십은[8] 의료현장에서 전문적 역할과 지식습득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신중한 의사소통과 자기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으며,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대처능력,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을 높이며[9], 대학생활적응능력[10]뿐만 아니라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11]까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셀프리더십은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간호대학생들의 사회부적응과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점인식,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정

도를 확인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강점인식,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강점인식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G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 목적,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효과크기는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예측변인 9개(연구변인 3개, 일반적 특성 6개)로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166개로 확인되었으나 탈락율과 회수율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234명으로 선정하였다. 응답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한 후 230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강점인식

강점인식 측정을 위한 도구는 Govindji와 Linley[12]에 의해 개발된 강점인식도구(Strengths Knowledge Scale)를 Kim과 Lee[13]가 번안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7점 척도로, 부정문항은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강점인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과 Lee[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2.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측정을 위한 도구는 Manz[14]가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하여 Kim[1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87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였다.

2.2.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 측정을 위한 도구는 Kim과 Kim[16]의 진로준비행동척도 16문항에 Lee[17]가 2문항을 추가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강점인식,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강점인식,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사이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강점인식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진로준비행동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통제회귀분석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강점인식,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정도

본 연구에서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강점인식 평균은 4.68점(SD=1.19), 셀프리더십 평균은 3.56점(SD=.50), 진로준비행동 평균은 3.37점(SD=.55)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정도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 정도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는 전공만족도와 경제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표 2와 같다. 사후 검정(Scheffé test) 결과,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경제수준이 높은 것이 보통이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N=230)

Variables	M±SD
Strengths knowledge	4.68±1.19
Self leadership	3.56±.5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37±.55

Table 2. Degree of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0)

Characteristics	Range	n(%)	Career identity	
			Mean±SD	t / F (p) Scheffé
Age	≥ 23	172(74.8)	3.36±.58	1.559 (.213)
	24-29	54(23.5)	3.43±.47	
	≤ 30	4(1.7)	2.94±.16	
Sex	Female	181(78.7)	3.39±.52	1.95 (.277)
	Male	49(21.3)	2.30±.66	
Grade	1st	28(12.2)	3.39±.71	1.533 (.207)
	2nd	40(17.4)	3.49±.77	
	3rd	83(36.1)	3.28±.41	
	4th	79(34.3)	3.40±.55	
Motive for applying	Aptitude, Interest	77(33.5)	3.45±.46	1.579 (.208)
	Stable Job	110(47.8)	3.36±.57	
	Another's advice	43(18.7)	3.27±.65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a	80(34.8)	3.55±.53	6.899 (.001) a>b
	Moderate ^b	139(60.4)	3.28±.55	
	Dissatisfaction ^c	11(4.8)	3.27±.37	
Economic state	High ^a	20(8.7)	3.71±.53	4.306 (.015) a>b
	Medium ^b	187(81.3)	3.33±.54	
	Low ^c	23(10.0)	3.41±.60	

거나 낮은 것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3.3. 대상자의 강점인식, 셀프리더십, 진로준비 행동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강점인식,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강점인식과 셀프리더십($r=.402, p<.001$)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강점인식과 진로준비행동($r=.464, p<.001$),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r=.512, p<.001$)도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4. 대상자의 강점인식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인 전공만족도와 경제수준을 더미변수로 처리한 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값이 모두 .10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수 자기상관을 검증한 결과로는

Table 3. Correlation among Measurement Variables (N=230)

Variables	1 r(p)	2 r(p)	3 r(p)
Strengths knowledge	1		
Self leadership	.402 ($<.001$)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464 ($<.001$)	.512 ($<.001$)	1

Table 4. Influence of Variables on Career Identity (N=230)

Variables	β	t (p)	Ad. R ²	F (p)	Durbin Watson
Strengths knowledge	.288	4.792 ($<.001$)	.343	20.938 ($<.001$)	1.977
Self leadership	.397	6.578 ($<.001$)			

Durbin Watson 지수가 1.977(1.862<d<2.138)로 나타나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회귀모형은 $F=20.938$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하였고,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²)는 .343으로 연구변인들이 진로준비행동을 34.1% 설명하였다. 독립변인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영향은 강점인식($\beta=.464$, $p<.001$), 셀프리더십($\beta=.512$, $p<.001$) 모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 3과 같이 확인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제공을 위해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주요의의가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강점인식의 평균은 4.68점(SD=1.19),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3.56점(SD=.50),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은 3.37점(SD=.55)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강점인식 평균은 7점 만점에 4.68점으로 동일한 도구와 대상을 이용한 Kim[18]의 4.66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Jo[19]의 3.16점보다 높았고 Kim[20]의 4.73점, Won[21]의 5.06점보다는 낮았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2]의 4.79점보다 낮았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평균은 5점 만점에 3.56점으로 Park과 Park[23]의 3.59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4]의 3.62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 평균은 4점 만점에 3.37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Park[23]의 2.79점, Kim[24]의 3.18점보다 높았으며,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25]의 2.57점, Kim[26]의 3.35점 보다 높았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2]의 2.36점 보다 높았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강점인식, 진로준비행동 평균은 동일 도구를 사용했다할지라도 대상에 따라 일관성이 없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차후에 일반대학생의 강점인식,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반복연구와 일반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 진로준비행동 변수들을 비교하는 연구,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비교하는 연구들을 통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 정도에 차이가 있는 일반적 특성은 전공만족도와 경제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은 대상과 도구를 이용한 Kim[24]의 연구와 일치하였

다. Kim[24]의 연구에서는 이들 특성 외에 연령, 학년, 종교, 전공선택동기, 평균학점, 봉사활동 경험, 진로관련 수업수강 및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반복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반적 특성들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강점인식,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강점인식과 셀프리더십은 모두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상관을 보였다. 강점인식이 높은 학생이 진로준비행동도 높다는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9]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셀프리더십이 높은 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연구결과는 Seo[2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강점인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인식하여 자신의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실제로 실행하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높아 진로준비행동이 높고, 자기 스스로 성취목표를 세운 후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인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자신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하고 확고한 긍정적인 상을 형성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강점인식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강점인식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다는 결과는 Kim[1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즉, 자신의 강점을 잘 인식하는 것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행동들을 실제로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준비를 돕고 더 나아가 임상현장에서 적성에 맞지 않아 이직하는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를 위해 간호대학생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강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강점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적극적인 활동들이 간호대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의미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다는 결과는 Seo[27], Choi와 Joo[28], Yang과 Song[29] 등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강점인식과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는 방안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 한편에 의한 결과이므로 본 연구결과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후 이들 변인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증진을 위해서 강점인식과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식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 다양한 강점검사와 개인의 경험들을 통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진로목표를 보다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진로결정을 체계화하여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들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생 지도 시 학생 개개인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다양한 교내, 외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러한 활동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격려함으로써 강점인식 수준을 높이고, 학과의 교과 외 프로그램에 다양한 강점인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셀프리더십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고,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책임감을 함양시킬 뿐만 아니라, 올바른 취업과 진로설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결과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30].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31]과 취업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Nam과 Kim[32], Park[33]의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체육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등[34]의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은 진로에 관하여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그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진로목표 설정과 진로목표성취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진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대학의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시 단순히 취업 및 진로에만 편중된 프로그램이어서는 안되며 셀프리더십과 같이 학생들의 리더십 함양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된다면 보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르므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강점인식과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내, 외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1. "I'm already in the 4th grade"...College students who are struggling to find their career path due to COVID-19(2022). Available Form: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1117500061> (accessed July, 8, 2022)
2. Half of college students can't decide their career path(2020). Available Form: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0/10/19/VTIK2X2WVFDSJF26H2SDN3DEH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accessed July, 8, 2022)
3. Results of the 2017 Career Education Survey on Universities(2017). Available Form: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239> (accessed July, 8, 2022)
4. Y. S. Jung, M. Y. Park, "The effects of ego-identity on career-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8, No.4, pp. 165-184. (2014).
5. E. J. Oh,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undergraduat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4, pp.31-58, (2014).
6. A. Roenkae, L. Pulkkinen, "Accumulation of Problems in Social Functioning in Young Adulthood: A Development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9, pp.381-391, (1995).
7. H.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ngths knowledge and strengths use: mediating of positive emotions and hope",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16).
8. S. A. Maykrantz, J. D. Houghton, "Self-leadership and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coping skill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Vol.68, No.1, pp.89-96, (1986).
9. J. K. Kim, J. K. Lee,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Korea Edutainment Society*, Vol.4 No.1, pp.13-22, (2022).
10. S. K. Choi, "The convergenc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leadership on long-term nursing intentions of graduat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3, No.5, pp.413-424, (2022).
11. E. K. Byun, H. J. Park, H. J. Park, "The influence of sleep quality, major satisfaction, ego-resilience, self-leadership on colleg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10, pp.155-165, (2022).
12. R. Govindji, P. A. Linley, "Strengths use, self-concordance and well-being: Implications for strengths coaching and coaching psychologists", *International Coaching Psychology Review*, Vol.2, No.2, pp.143-153, (2007).
13. M. J. Kim, H. K. Lee, "The mediating effect of strengths use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of

- strengths knowledge and career maturity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5, pp.1811-1830, (2014).
14. C. C. Manz,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pp.115, Prentice Hall, (1983).
 15. H.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2002).
 16. B. W. Kim, K.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9, No.1, pp.311-333, (1997).
 17. M. S. Lee, “*Analysis of relationship among career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percep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2003).
 18. K. H. Kim, “The influence of strengths knowled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3, No.3, pp. 363-370, (2022).
 19. J. Lee, Y. Cho, “Relationship between strength knowledg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49, No.3, pp.113-132. (2017).
 20. S. O. Kim,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strength recognition and self-elasticity on the way-preparatory behavior*”, Master’s thesis, Namseoul University, (2019).
 21. M. J. Won,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ngths us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ngths knowledge,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17).
 22. S. H. Park, “*The effect of high school students’ strengths knowledge and strengths use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19).
 23. S. J. Park, I. S. Park, “A study on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11, No.3, (2021).
 24. J. S. Kim, “*The effect of vocational consciousn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self 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9).
 25. M. N. Lee,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Korea Univesity of Technology Education, (2020).
 26. H. S. Kim,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relationships between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Vol.34, No.3, pp.367-384, (2019).
 27. K. H. Seo,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Focused on culinary major students -”,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Vol.23, No.2, pp.146-158, (2017).
 28. I. S. Choi, E. J. Joo, “Influ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ocial support”,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23, No.6, pp.145-173. (2016).
 29. S. J. Yang, Y. S. So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22, No.12, pp.443-470. (2015).

30. J. S. Lee, K. A. Kim,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on the employment strategie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16, No.2, pp.19-39, (2012).
31. N. R. Han, "Research on variable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ocused on the office administration major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0).
32. K. Y. Nam, K. A. Kim,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elf-leadership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8, No.7, pp.85-113, (2011).
33. J. G. Park,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ulinary arts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Mambu University, (2021).
34. J. I. Choi, T. Y. Han, Y. H. Lee,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of physical education major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23, No.5, pp.113-126, (2014).